

궤도사업 개통 후 문제점 검토를 통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김경호*, 정성봉[†], 최지호*

초 록 국내에서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궤도사업을 추진하여 운영 중인 사업은 약 60개이다. 하지만 최근 해운대 해변열차, 제주 에코랜드 관광용 열차가 탈선하는 등 운행 중 안전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대부분의 관광목적의 궤도사업은 궤도운송법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교통 목적으로 많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사고대응, 유지보수 체계 등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도시철도법과는 달리 궤도운송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빈도 증가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궤도운송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관광목적 궤도사업이 개통 후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련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법령 검토, 외국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한 후 궤도운송법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관광목적 궤도사업의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교신저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 (sbchung@seoul tech.ac.kr)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